

#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 멜버른 중심가에 크리에이터를 위한 작업공간 오픈

**산업·경제** - 윤리 규범과 안전 예방에 입각한 AI 규제

**사회·복지** - 비만 정신질환에 대처하는 쿠알라룸푸르시

**환경·안전** -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사업

**도시교통** - 도로의 주차 공간을 없애는 그레페키즈 프로젝트

**도시계획·주택** - 주거난 해결을 위해 주택 신규 공급 계획안 마련

##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 〈북아메리카〉

#### 미국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 〈아프리카〉

#### 케냐

나이로비	한 울
------	-----

###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황현정
-----	-----

### 〈아시아〉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	-----

####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지은
------	-----

####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	-----

#### 일본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 〈유럽〉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	-----

#### 독일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운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	-----

####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 프랑스

파리	김나래
	정연주

# 멜버른 중심가에 크리에이터를 위한 작업공간 오픈

호주 멜버른시 / 문화·관광

호주 멜버른시는 도심으로 더 많은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창조산업 관련한 비즈니스, 단체나 개인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콜린스가 스튜디오(Collins Street Studios)’ 사무실 공간 임대 등의 정책을 추진. 멜버른시 활성화 기금과 빅토리아주 정부의 협력을 통해 지원

## 콜린스가(街) 스튜디오 개관 배경

- 멜버른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이후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업무 지역)의 도시 재개발, 시장경제 논리, 경제적 압박 증가 등으로 약 5만 3,000㎡의 창조적 공간 손실
  - 2022년에는 도심 내 건물에 입주해 활동하던 수십 명의 예술가가 최대 약 50%의 임대료 인상으로 내쫓기는 결과 초래
  - 도시의 미래와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멜버른시 CBD에 더 많은 인구를 끌어들이기 필요성 증가
- 이에 멜버른시는 2008년부터 창조적 공간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Creative Spaces)’를 운영
  -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예술가와 창조 부문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시 공간 제공이나 소프트 기반 시설 제공
  -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창조예술 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관리
  - 이 프로그램에 2억 달러 규모의 멜버른시 활성화 기금(the Melbourne City Revitalisation Fund)<sup>1)</sup>의 일부로서 200만 달러 기부
-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멜버른시 중심가에 창조산업 부문 지원을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허브 조성
  - 빅토리아주 정부의 협력하에 창조산업 관련 비즈니스, 기관, 예술가들에게 더 저렴하고 깨끗한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서 ‘콜린스가 스튜디오’ 개관

1) 이 기금은 침체된 멜버른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페스티벌, 이벤트, 게임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창조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멜버른시에 더 많이 방문하고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콜린스가(Collins street)는 멜버른시의 상업, 비즈니스, 관광의 중심지로서 고급 레스토랑, 프리미엄 숙박시설, 주요 기업의 본사가 자리 잡은 랜드마크 거리
- 100명 이상의 창조예술가가 협업하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프로젝트 시설 개요 및 운영

-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콜린스가 271번지 건물 3층에 임대 계약 체결
  - 이 건물은 1929년에 지어진 민간 소유의 건물로, 멜버른시와 2023년부터 10년간 임대 계약
  - 1,125㎡의 공간에 약 100명의 크리에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조성
  - 협업, 아이디어, 자료 및 스킬 공유, 실습 등이 가능한 플랫폼 제공
- 다양한 예술 부문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공간과 임대료 제공
  - 조명, 냉난방, 환기, 와이파이(Wi-Fi), 전력 사용 등을 포함한 기본 시설 제공
  - 오피스 4구역, 스튜디오 15구역으로 기본 조성
  - 임대료는 도심 평균 임대료 약 \$654/㎡보다 저렴하게 약 \$250-465/㎡가 될 것으로 예상
- 입주 대상은 오피스 환경에 적합한 창조산업 관련 사업체, 조직 또는 개인
  - 2023년 6월 9일까지 지원받으며, 지원 전 반드시 개별적으로 사이트를 직접 방문 하여 공간 검토 후 지원서 제출
  - 사무실 입주는 2023년 11월 예상
  - 스튜디오 입주자는 1년 계약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1~3년의 연장 계약이 가능
  - 오피스 입주자는 5년 계약이 우선이며, 이후 1~5년의 연장 계약이 가능
- 각종 세금, 청소비, 수도세, 쓰레기 처리비용, 경비, 인터넷비 등은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에서 지원
  - 기본 제공 수준을 초과하는 인터넷 사용이나 전력 사용량은 입주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

## 기대효과

- 멜버른시의 가장 중심가에 창조적 예술가들이 모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유동 인구를 늘리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효과 기대
  - 창조 부문의 사업체와 예술가들에게 더 나은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의 협업을 지원 함으로써 그간 침체되었던 멜버른시 창조경제를 활성화

- 더 많은 방문객, 거주자, 노동자를 멜버른시에 유치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다양한 산업, 도시개발, 사회 커뮤니티 서비스들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



### Collins Street Studios

[그림 1] 콜린스가 스튜디오 (출처: <https://www.creativespaces.net.au/collins-street-studios>)

<https://www.creativespaces.net.au/collins-street-studios>

[https://creativespaces-production.s3.ap-southeast-2.amazonaws.com/646e9baa0df74\\_creative-spaces-guidelines-2023-collins-street-studios-25may.pdf](https://creativespaces-production.s3.ap-southeast-2.amazonaws.com/646e9baa0df74_creative-spaces-guidelines-2023-collins-street-studios-25may.pdf)

<https://www.premier.vic.gov.au/support-beloved-cbd-bring-more-people-citys-heart>

<https://www.theage.com.au/national/victoria/new-space-for-creatives-on-collins-street-20230512-p5d7x2.html>

<https://www.collinsstreet.com.au/>

황현정 통신원, [hj.hannah.hwang85@gmail.com](mailto:hj.hannah.hwang85@gmail.com)

# 윤리 규범과 안전 예방에 입각한 AI 규제

중국 베이징시 / 산업·경제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해 왔던 중국 정부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새로운 윤리 규범과 안전 예방에 입각한 규제 방안을 제시.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AI에 대해 본격적으로 규제할 것을 예고. AI 제품이 생성한 정보뿐 아니라 알고리즘 등 기초적인 AI 기술도 규제하려는 가운데 AI 산업의 혁신·발전도 꾀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됨

## 배경

- 기존 콘텐츠를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등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등장으로 세계 산업 환경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중국은 그동안 과학기술의 양면성(편의성과 위험성)을 인정하고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이익은 취하고 해는 피한다는 윤리 원칙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과학기술을 규제하였음. AI의 등장에도 마찬가지로 규제 방안을 제시
- 중국 국무원(중앙인민정부)은 지난 2017년 7월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발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원칙으로 삼되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나눠 윤리 규범의 제정과 안전 예방 등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강조
- 이 발전 계획에 맞춰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 차세대 AI 관리 전문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차세대 AI 윤리 규범’을 발표. AI 산업에서의 공정·공평·조화·안전의 촉진과 편견·차별·침해·유출의 회피를 위해 관리감독·연구개발·생산·소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AI 윤리 규범 제시

## 주요 내용

- 시는 올해 5월 말 국무원의 AI 발전 계획과 과학기술부의 AI 윤리 규범이 반영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AI 혁신 발원지 건설 실시 방안(2023~2025년)’과 ‘범용 AI의 혁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
- 시 AI 산업의 혁신·발전을 위해 2025년까지 AI 산업 성장률을 10% 이상 유지하고

핵심 AI 산업 규모를 3천억 위안(한화 약 54조 원)까지 늘리고 1만억 위안(한화 약 179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 또한 AI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 수가 국내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5~10개의 AI 유니콘 기업<sup>1)</sup>을 새롭게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생성형 AI가 시 경제의 기본적인 생태계가 될 것을 기대

-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
  - 상시 지도 메커니즘의 구축
    - 여론 형성과 사회적 동원 능력이 있는 AI 제품이 생성한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상시 지도 메커니즘의 구축
    - 알고리즘의 제출·변경·취소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 AI 윤리 규범에 입각한 관리·감독의 지속적인 강화
    - AI 윤리 규범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설치해 기업들의 자율·자치 능력을 제고
    - AI 윤리 규범 준수에 대한 심사·평가와 교육·홍보를 통해 AI 산업 주체들의 윤리 의식 강화
  - 데이터 안전과 개인 정보 보호 강화
    - 데이터 안전 인증제와 개인 정보 보호 인증제를 실시하도록 장려
    - 국가 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장려

## 시사점

- 베이징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AI 산업의 혁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시는 AI 윤리 규범과 안전 예방에 입각하여 AI 제품이 생성한 정보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등 기초적인 AI 기술도 규제할 것을 예고.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가 AI 산업을 혁신·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됨

[https://www.beijing.gov.cn/zhengce/zhengcefagui/202305/t20230530\\_3116889.html](https://www.beijing.gov.cn/zhengce/zhengcefagui/202305/t20230530_3116889.html)

[https://www.beijing.gov.cn/zhengce/zfvj/202305/t20230530\\_3116869.html](https://www.beijing.gov.cn/zhengce/zfvj/202305/t20230530_3116869.html)

정민욱 통신원, muchung617@gmail.com

1) 기업가치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인 스타트업

# 비만·정신질환에 대처하는 쿠알라룸푸르시

쿠알라룸푸르시 / 사회·복지

---

비만과 정신질환이 쿠알라룸푸르시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쿠알라룸푸르시청(DBKL)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 비만 확산 억제를 위해 무료 버스 운행과 차 없는 아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원 관리원의 역할을 확대

---

## 정책 배경

-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비만 문제
  - 2019년 국민건강 및 유병률 조사(The National Health and Morbidity Survey, NHMS 2019)에서 5세~13세 어린이의 비만율은 30%, 18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은 19.7%로 집계
    - 인구의 60% 이상이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질환 중 한 가지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
    - NHMS 2019 조사에서 2035년 말레이시아 비만율이 4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세계 비만 지도(World Obesity Atlas 2023)에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말레이시아 성인 비만율이 매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시 인접 도시이자 연방직할구인 푸트라자야의 성인 비만율이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
- 우울증과 불안장애 비율이 가장 높은 연방직할구
  -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는 성인 비율은 29.2%, 16세 이하 아동의 비율은 12.1%로 집계
  - 2022년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시행한 정신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연방직할구(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시민이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
    - 보건부는 그 이유를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높고 소득 하위 40%에 속한 가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

## 비만 확산·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 GO KL 무료 버스
  - GO KL 무료버스는 204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현재 25%에서 70%까지 늘리겠다는 쿠알라룸푸르시의 '교통종합계획 2040(Traffic Master Plan 2040)' 중 하나
  - 쿠알라룸푸르시청 건강환경부 노르 하리잠 이스마일 선임 사무관은 GO KL 무료 버스가 보행 환경을 조성해 비만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
  - GO KL 무료 버스는 2012년 9월 처음 운영을 시작한 뒤 2022년 12월 두 개 노선을 추가해 총 12개 노선을 운행
    - GO KL 무료 버스 차량은 모두 친환경 전기 버스로 총 62대 운행 중
- '쿠알라룸푸르 차 없는 아침(KL Car Free Morning)' 운영
  - 쿠알라룸푸르시는 매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쿠알라룸푸르시청 인근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
    -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은 쿠알라룸푸르시청-KLCC를 잇는 7k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
    - 둘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일요일은 쿠알라룸푸르시청-마스지드 자맥 모스크를 잇는 5km 구간을 산책로로 조성
  - '쿠알라룸푸르 차 없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공식 홈페이지(<https://klcar-freemorning.my/>)에서 개인정보 등록 필수
    - 참가자들은 달리기, 자전거, 걷기,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기타 가운데 선택 가능
- 공원 관리원 호칭 변경 및 역할 확대
  - 정신적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공원 관리원의 역할을 확대
    - 솔라이만 쿠알라룸푸르시청 도시계획부 관계자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에 조성된 공원은 총 27개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0.2㎡(약 3.08평)
    - 2022년 9월 쿠알라룸푸르 마하디 시장은 공원 관리원에게 근무 복장을 제공하고 호칭을 농업 부문 사무관(agriculture officier)에서 공원 관리원(park ranger)으로 변경
    - 단순한 수목 생육상태 점검, 경관 조성뿐 아니라 공원 지킴이,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설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통해 공원 관리원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정신적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됨



[그림 1] '쿠알라룸푸르 차 없는 아침' 구간 (출처: KL City Morning)

<https://codeblue.galencentre.org/2022/08/18/moh-to-establish-national-centre-of-excellence-for-mental-health/>

<https://codeblue.galencentre.org/2023/03/08/zaliha-depression-and-anxiety-rates-highest-in-federal-territories/>

<https://klcarfreemorning.my/>

<https://www.malaysiakini.com/letters/661641>

<https://codeblue.galencentre.org/2023/03/30/how-city-hall-helps-keep-kuala-lumpur-healthy>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2/03/783279/one-two-adults-malaysia-overweight-says-deputy-health-minister>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사업

프랑스 파리시 / 환경·안전

프랑스 파리시는 2024년 올림픽 개최를 맞이하여 ‘플라스틱 제로(Le Pari(s) du Zéro Plastique)’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음. 공공 음용수 제공, 공병 및 용기 회수 프로그램, 인증서 제도를 통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

### 사업 개요

- OECD에 따르면 매년 4억 3천만 톤에 이르는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며 이 중 1억 3천 9백만 톤이 단기 사용 물품으로 대부분 폐기물이 됨
- 플라스틱은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환경 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폐기물이 되었을 때도 토양, 물,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 및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파리시에서 추진하는 폐기물 제로(Zéro Déchet) 정책의 하나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프로그램을 추진
- 파리시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2024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로를 목표로 설정

### 주요 내용

-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구내식당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 어린이집의 장난감 및 놀이기구 중에 플라스틱 제품 비율을 75% 미만으로 제한
  - 플라스틱 포장이나 용기 대신 포장을 없애거나 종이 포장 또는 강화유리, 스테인리스, 세라믹 소재 용기로 대체
  - 젓병을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유리 소재로 대체
- 음용 분수대를 설치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에 담긴 물 대신 개인 물병이나 재사용 가능한 컵으로 어디서나 무료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
  - 현재 1,200여 개 음용 분수대를 파리 시내에 설치
  - 2024년까지 100개 추가 설치 예정
  - 파리 시내 5개 스포츠센터에 분수대를 추가 설치하여 스포츠 인구의 참여 유도

- 유리병을 회수하는 기존 프로그램 외에 일회용 플라스틱 음식물 용기 대신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안
  - 공병 회수에 참여하는 곳을 지도로 제공하여 일반인 참여 유도
  - 2023년 1월부터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 제공하는 것 금지
  - 2027년에는 포장 음식의 10퍼센트는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 용기 사용 의무
  - 파리는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여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제공, 수거, 세척 후 재공급하는 사업자와 요식업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함
  - 희망하는 요식업체에 용기 회수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 재사용 용기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분야별로 업체나 기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로 사업에 참여 시 인증서 발행
  - 2023년 4월부터 인증서 발행하여 현재 약 100여 곳에서 참여를 서명
  - 관광 분야(요식업소, 숙박업소, 관광지 등), 건강 및 위생 분야, 화장품 분야, 배송 분야, 행사 분야, 식품 분야로 구분
  - 분야별 의무 조항과 선택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쉽게 참여하도록 함
  - 참여 기업이나 기관으로 서명 후 12개월 안에 실천 내용을 확인받도록 함
  - 인증서 발행 시 '파리시 제로 플라스틱' 네트워크에 등록
- 파리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나 제공 폐지
- 시장에서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 시사점

-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규제에 있어 시민의 수용성과 필요를 고려한 정책 도입
- 2024년 올림픽 개최로 우려되는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
-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과 용기 사용 증가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
- 용기 회수 프로그램은 관련한 새로운 산업(일자리)이 소비자와 잘 연결되도록 지원하여 환경문제와 새로운 일자리 제공에 모두 기여

<https://pariszeroplastique.fr/>

<https://playplay.com/app/share/ville-de-paris/w4kwjxgffvforum>

<https://www.oecd.org/environment/plastics/>

<https://www.paris.fr/pages/mettre-fin-a-la-pollution-plastique-dans-les-villes-24038>

<https://www.paris.fr/pages/paris-accelere-pour-mettre-fin-au-plastique-a-usage-unique-23845>

<https://www.paris.fr/pages/paris-ville-sans-plastique-jetable-d-ici-2024-6931>

<https://www.paris.fr/dossiers/transformations-olympiques-12>

<https://www.sportzeroplastique.fr/>

<https://zerowasteparis.fr/adresses/>

---

정연주 통신원, yonjoo1004@naver.com

# 도로의 주차 공간을 없애는 그레페키쯔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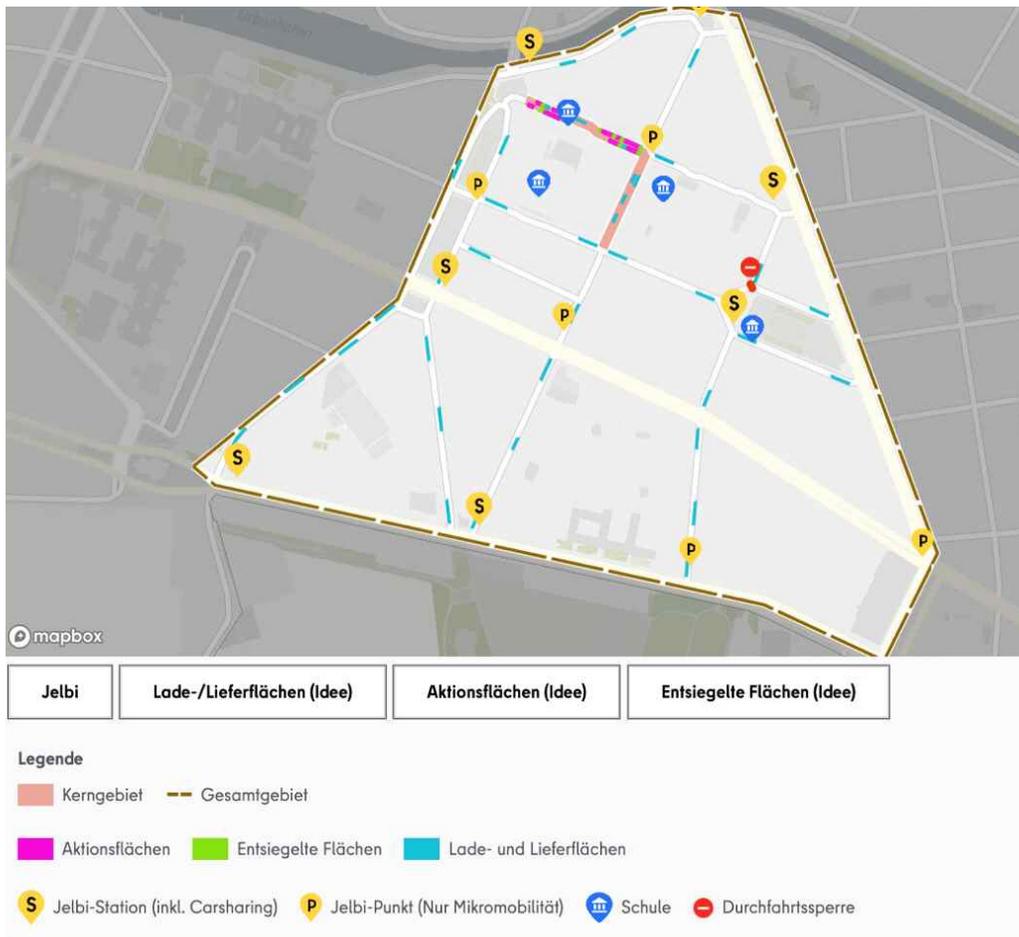
독일 베를린시 / 도시교통

독일 베를린시는 도로의 개인 주차 공간을 없애고 새로운 공공 공간을 편성하는 그레페키쯔 (Graefekiez) 파일럿 프로젝트를 착수. 이는 교통 안전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이동성 전환을 위한 조치

## 배경과 목적

- 교통 안정화의 필요성 증대
  - 베를린시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쯔베르크(Friedrichshain-Kreuzberg) 지역구의 그레페키쯔는 2만 2,000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동네
  - 1980년대에는 자동차가 보행 속도로 다닐 만큼 안전하고 자동차 교통량도 많지 않은 지역이었으나 오늘날 자동차와 배달 차량의 수가 급증. 과속 운전과 시야 확보 미흡으로 사고 위험이 커졌으며 특히 주변 4개 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행인과 자전거 운전자도 충돌 위험이 커짐
-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먼저 대중교통, 자전거 또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교통 형평성에 관한 논의가 심화됨
  - 그레페키쯔는 주민 1,000명당 182대 자동차를 사용(베를린 평균은 1,000명당 335대 자동차)
  -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장소는 일부 주민이 자동차를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장기 주차하고 있어서 주차 공간을 찾는 배달 차량이나 간호 서비스 차량들을 고려할 때 주차 형평성이 떨어짐
- 도로 공원청이 2022년 지구 의회(BVV) 결의로 파일럿 프로젝트 제안: 공공 도로를 활용 용도와 목적에 따라 재분배하는 모델 프로젝트
  - 공공 도로의 개인 주차 공간, 1년 이내에 400여 개 축소
  - 새로운 화물 적재 및 배송 구역 배치, 공유 자동차와 공유 스쿠터 사용 공간 확보, 공공 공간 증대 및 공간 녹화
  - “공공 공간은 부족하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레페키쯔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이웃과 협력하여 미래의 거리가 어떤 모습일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및 배달 서비스의 상황을 개선하며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공공 공간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 아니카 게롤드(Annika Gerold), 교통, 녹지, 질서 및 환경을 위한 지역구 의원(Bezirksstadträtin für Verkehr, Grünflächen, Ordnung und Umwelt)



[그림 1] 그레페키즈 프로젝트 지도 (출처: <https://www.projekt-graefekiez.de/>)

## 주요 내용

- 이하 공간에 대한 구분(지도 설명 포함)
- 전체 지역(Gesamtgebiet - 갈색 점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레페키즈
- 핵심 지역(Kerngebiet - 연한 오렌지색): 주요한 구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
  - 학교가 인접한 뵉크슈트라쎄(Böckhstraße)와 그레페슈트라쎄(Graefestraße)가 해당(학교 표시는 파란색 점, 길 폐쇄 구간은 빨간색 점)

- 액션 구역(Aktionsflächen - 진한 분홍색): 주차 금지 구역
  - 차량을 소유한 주민들은 개인 차량을 고층 주차장에 매달 50유로를 지불하고 주차. 대신 주변 이웃들이 공공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동네 행사에 이용하기도 함
- 적재 및 배송 구역(Lade-und Lieferflächen - 하늘색): 물건의 상하차와 배송을 위한 곳
  - 다른 차량의 주차가 허용되지 않음. 택배 서비스나 쓰레기차 등의 서비스 차량만 가능
  - 배달 차량 등 서비스 차량은 더 이상 2열에 정차할 필요가 없음. 도보의 행인들도 배달 차량과 마주하는 위험한 상황 줄어들
- 비포장 구역(Entsiegelte Flächen - 녹색): 도로 포장을 걷어 내고 흙으로 채운 지역
  - 비가 더 잘 스며들고 더 많은 녹화 조성이 가능해짐
- 젤비 스테이션(Jelbi Station - 노란색S), 젤비 포인트(Jelbi Point - 노란색P): 공유 자동차와 공유 자전거 및 공유 전동 스쿠터를 빌릴 수 있는 공간
  - 쇤라인슈트라쎬(Schönleinstraße) 및 주드슈테언(Südstern) 지하철역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환승 용이
  - 젤비(Jelb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주차 공간
  - 일반 주차장: 프로젝트 지역 인근의 헤르만플라츠(Hermannplatz)의 다층 주차장에 장기 주차 가능
  - 장애인 주차 공간은 그대로 유지

## 활동 주체와 활동 개요

- 베를린 사회과학센터(WZB)<sup>1)</sup>, 종이비행기협회<sup>2)</sup> 등 파트너들이 참여해서 시민 참여와 연구를 수행
- 종이비행기협회를 중심으로 지역 설계에 주민 참여 반영
  - 주차 공간 대신 생긴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의
  - 더불어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2개 도로만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전체 도로로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원칙이 필요한지를 논의. 이를 위해 배송 및 적재 구역으로 어디가 적합한지를 주변 상인들에게 질의

1) 베를린 사회과학센터(WZB): 세계화된 현대사회의 문제에 중점을 둔 기초연구 수행 조직. 연구 분야는 사회적 불평등의 역학, 시장과 선택, 사회 및 경제 역학, 국제정치와 법, 정치 체제의 역학, 이주와 다양성, 개발의 정치적 경제성 등

2) 종이비행기협회: 도시 공간을 연구하고 현재와 미래의 도시 과제에 대한 개념을 개발하는 비영리 독립 조직.

- 베를린 사회과학센터(WZB)가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 전, 중, 후에 주민 대상으로 조사. 교통 상황 평가 및 공해와 소음을 측정
  - 종합적인 결과를 모아 그레페키즈 전체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을 개발해서 지구 의회에 제출할 예정
- 자체 프로젝트 자금은 없으나 베를린 사회과학센터와 종이비행기협회의 활동에 대해 메르카토르재단(Mercator Stiftung), 기후변화센터(Climate Change Center) 및 독일연방환경재단(Deutsche Bundesstiftung Umwelt)에서 약 50만 유로 지원

### 반대 및 논란의 여지

- 기민당(CDU)의 티무르 후세인(Timur Husein) 등은 이 프로젝트를 비판
  - 모든 주민이 지역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반대 신청서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
  - 후세인은 지역구의 계획에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 표명
  - 지역 주민 요세프 슈밥(Josef Schwab) 씨는 40년 이상 이곳에 살았으며,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 자동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피력. 한편 지역 사업가 크리스티안 자코브스키(Christian Sarkowski) 씨는 동네에 키오스크를 운영 중인데 이 프로젝트 때문에 배송의 차질 위험을 토로

<https://www.berlin.de/ba-friedrichshain-kreuzberg/aktuelles/pressemitteilungen/2023/pressemitteilung.1303874.php>

<https://www.rbb24.de/panorama/beitrag/2023/03/berlin-kreuzberg-graefekiez-modellprojekt-ohne-private-parkplaetze.html>

<https://www.projekt-graefekiez.de/>

<https://www.paper-planes.net/>

<https://www.wzb.eu/en/the-wzb>

홍남명 통신원, hongnamyoung@gmail.com

# 주거난 해결을 위해 주택 신규 공급 계획안 마련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 도시계획·주택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최근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의 주거계획(SF Housing Element 2022)을 발표하여 주택 8만 2,000호를 새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목표 공급량 가운데 총 40%는 공공재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중·고소득 지역 위주로 조성하여 소득이나 인종 분리 정도를 완화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 배경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세계에서 가장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
  - 샌프란시스코시는 인근 실리콘밸리에 종사하는 고임금 테크산업 종사자들의 유입과 저밀도 단독주택만을 허용하는 엄격한 용도규제 등의 복합적 이유로 주거난이 가속화
  -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시의 중위 주택가격은 130만 6,400달러(약 17억 원), 중위 임대료는 2,167달러(약 280만 원)
- 중산층 이상을 위한 시장가격 주택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요구도 확대

## 샌프란시스코 2022년 주거계획 개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1969년부터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소득 수준의 주민들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요구
  - 지역계획 기구인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정부협회에서 8년 주기로 지역주택소요평가(Regional Housing Needs Allocation, RHNA)를 수행
  - 각 지자체에서는 주거계획(Housing Element)을 수립하여 주택소요를 충족하려는 방안을 마련
-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23년 1월 31일에 주거계획 SF 하우스링 엘리먼트(SF Housing Element)를 최종 승인
  - 샌프란시스코시는 2023~2030년 동안 8만 2,069개 지역 주택소요를 충족하도록 목표량이 할당되어 공급 방안을 마련

## 계획 목표

- 새롭게 발표된 주거계획은 주거공급 확대를 통해 5대 목표를 충족하고자 함
  - 주거권을 통한 건강, 사회경제적 복지 증진
  - 아메리카 원주민, 흑인과 그 외 유색인종,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폐해 시정
  - 공평한 투자와 성장 분배로 포용적인 동네 조성
  - 다양한 문화, 가족 형태, 그리고 소득 수준을 지닌 기존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
  - 연결성이 높고 건강하며 지역사회 문화가 풍부한 지역사회 조성
- 특히 전체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입지에 공급하여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목표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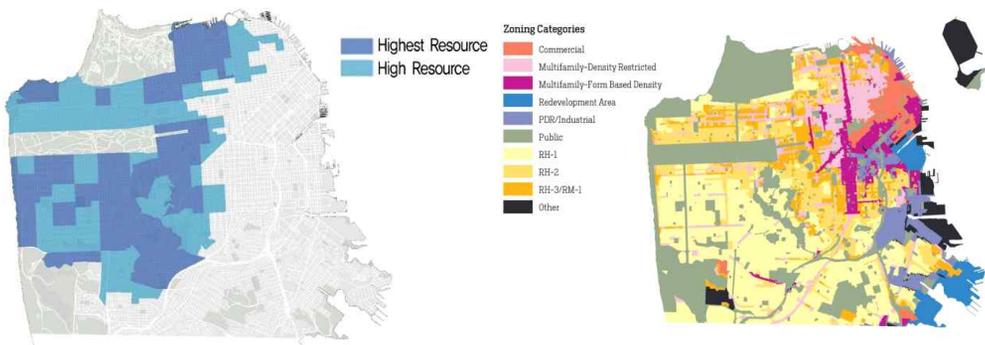
- 주택 소요는 [표 1]과 같이 소득구간별로 할당되어 있으며 저소득층에 40% 할당
  - 미국에서 대다수 정부 주도 주거사업은 지역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극빈층(30% 미만), 극빈층(50% 미만), 저소득층(80% 미만), 중소득층(120% 미만), 중산층 이상(120%)으로 가구를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
-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계획 기간인 2015~2021년 동안 목표량 2만 8,869호 가운데 주택 2만 6,861호를 신규 공급
  - 중산층 이상 대상 주택은 목표량의 1.5배로 초과공급한 반면에 저소득층 대상 주택은 목표량의 절반만을 공급
    - 공공주택 기금 확충, 관련 세제 혜택 마련, 세입자 보호 수단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공공주택의 입지 문제와 엄격한 토지용도규제 등으로 저소득층 대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

[표 1] 샌프란시스코 2023-2031년 지역주택소요평가

소득 수준	총 목표공급량(호)	연간 목표공급량(호)	비중(%)
최극빈층	13,981	1,748	17
극빈층	6,886	861	8
저소득층	12,014	1,502	15
중소득층	13,717	1,715	17
중산층 이상	35,471	4,434	43
총계	82,069	10,258	100

출처: SF Housing Element 2022

- 신규 주택은 [그림 1]과 같이 규정된 중·고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
  - 도시 전체 부지의 52%를 차지하는 중·고소득 지역은 동네 자원 및 서비스 등이 양호
    -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저밀도 단독주택만을 허용하는 엄격한 용도규제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진입을 최소화하고 주택 가치를 보호하길 희망
    - 한편 이러한 지역에는 도시 전체 공공주택의 약 10%만이 입지
  - 샌프란시스코시는 공평한 도시개발을 위해 주민협의 촉진, 용도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주택 관련 재원을 확대할 예정



[그림 1] 샌프란시스코시 중·고소득 지역 및 용도규제 현황 (출처: SF Housing Element 2022)

<https://www.sfhousingelement.org/>

<https://censusreporter.org/>

[https://de84u3xi40u1.cloudfront.net/sfhousingelement.konveio.com/s3fs-private/pdf/Housing%20Element%202022%20Update\\_12.16.22\\_Clean.pdf#pdfjs.action=download](https://de84u3xi40u1.cloudfront.net/sfhousingelement.konveio.com/s3fs-private/pdf/Housing%20Element%202022%20Update_12.16.22_Clean.pdf#pdfjs.action=download)

송 태 수 통신원, taesoo.song@berkeley.edu

## 세계도시동향 제555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3년 7월 10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